

【 해외뉴스금융: 중국 】

보감위, 은행으로부터 보험회사 권리 되찾아야

- 중국 보감위는 은행과 업무협력 시 보험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을 지양하고 보험회사의 발언권을 회복하도록 요청함.
 - 중국 내 은행들이 기금판매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카슈랑스 판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무리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음.
 - 은행은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판매 규모와 상관 없이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한 보험대리판매 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 - 은행과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보험판매가 부진할 경우에도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으며, 이미 상당수의 보험회사가 계약이행을 위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함.
- 연초 이후 보험회사들의 영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방카슈랑스 업무 의존도가 높아지자 보험회사들은 은행과의 협상에서 상대적인 약자로 전략하게 됨.
 - 보험회사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인정하면서도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 은행이 요구하는 불공정 계약서에 서명함.
 -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 이미 연간 방카슈랑스 판매목표를 달성한 보험회사가 많아 하반기부터는 방카슈랑스 판매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황변화의 여지 또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.
 - 보감위도 ‘업무조정 가능성이 있을 때 과감하게 은행과 협상해야 하며 생손보사의 공동대응이 절실한 상황’이라고 역설함.

(증권시보, 10/10)